

2023. 5. 3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2133-7400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2133-7403

주무관    이왕기    2133-7409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9쪽

### 서울시, '100세 어르신 모시는 효심'...효행유공자 34명 표창

- 서울시, 올해 처음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모시는 34가족에게 표창 수여
- 31일(수),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표창 전달
- 유공자 표창을 통한 효행 실천 문화 장려 및 인식개선 확산 기대

- 서울시는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효자·효부·효손)을 대상으로 따로 표창을 시상한다고 31일 밝혔다.
- 시가 이처럼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족에 대해 따로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은, 연로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서울시는 매년 5월, 어버이날 기념식을 통해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등의 유공자도 표창해 오고 있다.
-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 대한 표창 수여는 31일(수) 10시 30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지하2층)에서 (사)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열리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하여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하며 100세 이상 어르신 네 분과 수상자 가족이 참여한다.

- 행사에서는 평소 어르신을 공경하고 100세 이상 부모를 헌신적으로 봉양하며 효행을 실천해 온 효자·효부·효손 34가족에게 오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하고 이들의 효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눌 예정이다.

#### 【종로구 최고령 어르신을 모시는 헌신과 사랑의 가족】

- 종로구에 사는 이은희 씨는 108세(1914년생)인 외할머니를 2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오고 있다. 이 씨는 가족들 사정으로, 남편과 상의를 통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 이 씨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으며, 이 씨는 여전히 외할머니를 정성을 다해 부양하고 있다. 어르신은 2017년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치매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씨와 가족들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어르신을 보살피고 있다. 이 씨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헌신적으로 외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에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 【110세 어머니를 모시는 평범한 가장, 그는 유일하지만 진짜 아들】

- 평범한 50대의 가장 김채현 씨는 치매, 당뇨, 고혈압, 천식,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110세(1912년)의 모친을 직접 집에서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있다.
  - 김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시키라는 조언도 자주 들으나, 낯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머니와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생각해 모친의 수발을 직접 들고 있다.

#### 【40년의 세월 동안 부모를 알뜰살뜰 챙기며 사는 장녀】

- 육남매의 장녀 박인숙 씨는 형제들이 지방으로 흩어지자, 40년 가까이 부모님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다.

- 박 씨는 어려운 살림으로 직장생활까지 병행하는 힘든 상황속에서도 묵묵히 100세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2021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더욱 정성껏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정성을 다해 식사를 챙기고, 주 2~3회 목욕도 시켜드리며, 같이 산책하며 말벗도 해 드리는 등, 아버지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

**【그 밖의 여러 가족들의 효행 이야기】**

- 30년 넘게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지키는 효부
- 청력장애와 거동이 불편하신 홀어머니를 30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낸다는 환경미화원 효녀
- 아프신 어른을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고 봉양으로 모셔,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어머니를 위해 백세연을 여는 아들
- 그 누구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시간, 50년을 배우자와 함께 장모님을 모신 지체 2급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위
- 치매 모친을 위해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늘 찾아 뵙고 챙기는 아들, 그 마음을 지역사회로까지 넓혀 독거어르신을 향한 식사 배달·도시락 제공, 청소, 진료 도우미로까지 나서는 지역사회의 아들
- 본인 건강과 생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63년간 모를 부양하고 간병한 딸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00세 이상의 어버이를 오래기간 섬겨온 분들이 계신다. 한분 한분 가족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마음으로 진하게 전해지는 감동과 깊은 효심을 느낄 수 있다.” 라며 “서울시도 어르신과 이를 부양하는 가족들과 함께, 효 문화 전승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족 효행유공 표창계획 및 수상자 명단(34명) 1부.

[붙임]

## 시장표창수상자 및 공적사항

연번	공적분야	자치구	성명	관계	공적개요
1	효행유공	종로구	이은희	손녀	가족관계등록부상 손녀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딩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음. 2004년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상경하였으며, 최근 할머니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가정에서 손녀와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계심.
2	효행유공	중구	장복기	자녀	1남 2녀 중 둘째로서 청평화시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며 바쁜 와중에도 2006년부터 외부인을 낯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어르신을 돌보고 있음. 동대문상가 상인회에서도 모범적인 상인으로서 덕망이 높고, 효행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주변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음.
3	효행유공	용산구	김채현	자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110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화목하게 살고 계심.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을 위하여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여 복지 상담을 받고 모친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챙겨드리는 등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음. 현재 어머니는 치매, 당뇨, 고혈압, 천식,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며, 치매로 가끔 폭력성을 보이고 계셔서 일할 때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돌봄을 받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있음.
4	효행유공	성동구	박인숙	자녀	6남매 중 장녀로서 어려운 형편에도 40년 가까이 100세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효 사상을 실천하고 있음. 특히 형제자매들이 먼 곳에서 생활하는 등의 사유로 부모님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 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며 돌봐줌.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혼자되신 아버지에 대한 세심한 간호와 식사, 산책 등을 함께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부인과 훌륭한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임.
5	효행유공	광진구	이순자	며느리	30년 이상 지극정성으로 100세 이상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고 있음. 치매로 어르신을 혼자 돌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함께 상시로 어르신을 돌봐왔으며, 약 4년 전부터 어르신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전립선암 수술을 하였고, 이후 자력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한 달에 한번 씩 소변줄을 교체해 왔음. 이 외에도, 치아가 없는 어르신께서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식사를 마련하는 등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봉양함.
6	효행유공	광진구	이화숙	며느리	30년 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계신 102세 시아버지를 모시며 가정을 위해 헌신함. 특히 시아버지, 본인, 배우자, 자녀들과 3대가 함께 살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뤘고 자녀들 또한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에 모범이 되고 있음.
7	효행유공	광진구	정연희	자녀	25년 동안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모시며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의 정신을 실천하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옴. 노인복지 분야에서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음.

연번	공적분야	자치구	성명	관계	공적개요
8	효행유공	동대문구	이주자	자녀	<p>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청력 장애와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홀 어머니를 온 마음을 다해 모시고 계심.</p> <p>자신께서도 75세 이상의 고령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계시다고 하며, 덕분에 어머니께서 누구보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100세 이상 장수하고 계심.</p> <p>이주자 님의 효심이 주변에도 널리 알려져 칭찬이 자자하여 지역사회 의 귀감이 되고 있음.</p>
9	효행유공	동대문구	안성호	자녀	<p>권정임 어르신(1922년생)의 4남 4녀 중 셋째 아들로 30여 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고향인 청주에서 막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3년 전부터 안성호 님이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서 봉양하고 있음.</p> <p>어머니께서는 허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며, 건강상 이유로 이번 백세연에 못 오신 고향 친척 분들께 인사도 하고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함.</p> <p>8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건강하게 계신 모습을 보면 본인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는 안성호 님은 주변에 귀감이 됨.</p>
10	효행유공	도봉구	석어영	사위	<p>자신과 배우자와 함께 102세의 장모님을 50년 동안 정성을 다해 봉양하고 있음.</p> <p>본인 역시 지체 장애와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8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치매와 척추 골절로 치료를 받고 계신 장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됨.</p>
11	효행유공	노원구	이명자	며느리	<p>1993년 결혼 후 시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았으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극진히 돌보고 있음.</p> <p>특히 2005년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시부의 식사와 살림을 책임지고 동주민센터와의 연락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함.</p> <p>2017년 대장암 수술 시 극진한 돌봄과 병간호로 어르신 건강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러한 이명자 님의 노력 덕분에 시아버지께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심.</p> <p>최근 배우자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혼자 시아버지를 모시며 자녀들도 잘 챙기는 등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p>
12	효행유공	노원구	오진명	자녀	<p>오진명 님의 100세 모친께서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거주하였으나 연세가 들고 쇠약해져 서울로 오시게 되었음.</p> <p>오진명 님의 모친께서는 현재 치매 증세가 있고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아파트 생활이 어려우며 자유로운 외출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모셨으며, 오진명 님 역시 10분 거리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을 구해 가까운 거리에서 모친을 모시고 있음.</p> <p>이 외에도 5년 동안 독거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식사·도시락 제공, 청소, 병원 진료와 입·퇴원 지원 등)과 2년여 간의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례 공부를 통해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장례 또한 지원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됨.</p>
13	효행유공	노원구	변기원	자녀	<p>4형제 중 셋째로, 6년 전에 모친을 모시던 첫째 형이 사망한 후 모친을 자신의 거주지로 모셔 배우자와 함께 극진히 봉양하고 있음.</p> <p>자영업을 하면서도 모친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집에 들리며 쉬는 날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모친께서는 100세에 이르러도 혼자 거동이 가능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심.</p> <p>또한, 노원구 상계5동 방위협의회에서 총무 및 회장으로 10년 이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23년 3월 7일에는 57사단장 표창을 받았음.</p>

연번	공적분야	자치구	성명	관계	공 적 개 요
14	효행유공	노원구	홍능일	자녀	2017년부터 부친을 모시고 있으며, 부친께서 올해 100세가 되었음. 홍능일 님의 부친은 한국전쟁 실항민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정착한 후 종로에서 생활하였으며, 현재는 홍능일 님 집 근처에 거주하고 계심. 홍능일 님과 배우자는 일을 하면서 부친의 안부를 수시로 살피고 식사를 돌보며 부친을 모시고 있음. 부친께서 최근 기력이 약해져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홍능일 님의 정성과 보살핌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심.
15	효행유공	은평구	유수열	며느리	유수열 님은 6년 동안 100세가 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음. 시어머니께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여 거의 누워서 생활하고 있으며, 연로하여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영양 죽이나 스프 등을 정성껏 만들어 드리고 있으며 매일 씻겨드리고 머리도 직접 잘라드리는 등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함. 이 외에도 불광2동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위기가정 발굴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등 8년 동안 선행을 펼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귀감이 됨.
16	효행유공	서대문구	김영철	자녀	100세 이상의 어르신을 함께 모시고 살고 있으며 2년 전 돌아가신 모친께서 치매와 건강 악화로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힘든 내색 없이 어르신을 잘 보살피어 이웃의 귀감이 됨.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 김영원님의 식사를 챙기며 침상을 정리하는 등 여전히 효를 실천하고 있으며, 부모님께서 건강히 곁에 계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심.
17	효행유공	서대문구	노명희	자녀	105세의 어머님을 10년 동안 극진히 돌보고 봉양하고 있음. 노명희 님의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다가 여건이 어려워져 어머니께서 요양원과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다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함. 이에, 노명희 님 역시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본인도 류마티스 등 자가 면역질환을 앓고 있어 어머님을 봉양할 형편이 안 되었지만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음. 그 결과, 양로원에 계실 때 제대로 걷지 못하시던 어머니께서 홍제천으로 같이 산책을 나가실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함.
18	효행유공	마포구	조원순	자녀	3남1녀 중 둘째 자녀로서, 가정형편 등으로 노모를 모시기 어려운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 숭선수범하여 20년 동안 노모와 함께 지내며 효행을 실천함. 노모께서는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치매, 우울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시며, 조원순 님 역시 2013년경 2번의 교통사고 후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완치되지 못한 채 퇴원하여 어머니를 돌봄.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휠체어로 활동하며 노모의 식사와 목욕, 병원 진료 등의 일상생활을 보살피고 있으며, 노모께서 조원순 님의 간병만을 고집하여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조원순 님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극진히 보살피고 있음.
19	효행유공	양천구	남인갑	자녀	10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로, 결혼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극진히 모심. 어머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고, 자신 역시 72세라는 고령임에도 아버지인 남정상 님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음. 남정상 님은 1920년 생으로 만 102세 임에도 글을 쓰시는 등 취미생활을 하시며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심. 이처럼 오랜 기간 부모에게 효를 다하였음에도 남인갑 님은 자신의 부족함에 죄송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며, 효행을 실천함.

연번	공적분야	자치구	성명	관계	공적개요
20	효행유공	양천구	이근만	자녀	이근만 님의 모친은 2016년 뇌경색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근만 님은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로 어머니를 위로하며 돌보았고, 이러한 이근만 님의 헌신으로 어르신께서 건강을 유지하심. 현재 모친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시고, 본인 역시 78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2세의 어머니를 섬기고 극진히 간호하며 효행을 실천함.
21	효행유공	강서구	장경례	자녀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를 앓고 계신 101세의 노모와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섬김과 돌봄을 실천함. 노모의 불편을 염려하여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24시간 노모를 돌보아 왔음. 특히 본인께서도 77세의 고령으로 머릿속에 종양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직접 돌봐드리며 효를 생활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타의 모범이 됨.
22	효행유공	강서구	정천우	자녀	4남매 중 장남으로 결혼하기 전부터 홀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였고,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돌봄. 특히 공직자로 근무하며 가정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고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고령의 어머니께서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지내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살핌. 이러한 정천우 님의 진심 어린 효행으로 어머니께서 101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며, 지역사회 모범이 되었음.
23	효행유공	구로구	박옥래	며느리	박옥래 님은 배우자와 함께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모 김보순(102세)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음. 가족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홀몸이 된 시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으며, 재가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시모의 식사를 챙겨드리며 극진히 모시고 있음. 배우자께서도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옥래 님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언제나 부모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음.
24	효행유공	금천구	안옥희	자녀	63년간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100세인 모친을 부양(간병)하고 있음. 국가유공자인 배우자와 친정어머니를 함께 부양하다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모친을 돌보고 있음. 현재 모친께서는 100세로 청각장애 및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으나, 안옥희 님은 어머니와 친구처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고기를 좋아하는 모친을 위해 매일 맞춤형 식단을 준비하는 등 미담이 주변에 널리 알려짐. 특히, 본인께서도 만 81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에 지역사회의 칭찬이 자자함.
25	효행유공	금천구	조성철	자녀	약 20여 년 전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되신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모시며, 자녀 또한 성실히 양육함. 모친께서는 고령으로 심장질환(부정맥)과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녀 조성철과 며느리가 자신을 정성으로 부양한다며 칭찬하심. 이처럼 조성철 님은 3대가 한집에 살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됨.

연번	공적분야	자치구	성명	관계	공적개요
26	효행유공	영등포구	정인선	며느리	결혼 후 45년 동안 시부모님과 자녀들을 돌보아 왔으며, 시아버지와 남편이 별세하신 후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성심껏 돌보고 있음. 시어머니께서 장기요양보험 4등급 지원 대상이나 남편과 자녀가 사망한 후 심한 불안증상을 겪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어서 정인선께서 매일 휴식 없이 돌봄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정인선님의 자녀들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집안 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수행하는 등 봉사활동도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음.
27	효행유공	영등포구	노경래	며느리	1975년에 결혼하여 약 45년 동안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돌보고 병환이 있는 노모와 남편을 성실하게 부양하는 등 효행을 실천함. 어르신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노경래님께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산책과 병원 동행 등 매일 정성을 다해 극진히 모시면서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 이처럼 노경래님은 40여 년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도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음.
28	효행유공	동작구	김태식	자녀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치매에 걸린 모친(만 101세)을 정성으로 돌보고 보살피며, 60년간 자녀로서 헌신함. 부모에 대한 효행은 물론이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이웃과의 관계망 형성과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2022년 10월 대통령 축하카드와 청려장(지팡이)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29	효행유공	서초구	이우정	자녀	39년 동안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효성이 지극한 자녀임. 어머니께서 2007년에 쓰러지신 후 거동이 어려워지셨고, 97세에 화장실 이동 중 골절로 외상환자가 된 이후에는 이우정님께서 전적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어머니 연세가 100세 이상인 관계로 치아 손상이 심해 매 끼니마다 유동식을 만들어 드림. 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소리를 지르시는 등 힘겨운 상황에서도 깊은 효심으로 모친을 돌보고 섬기며 타의 모범이 됨.
30	효행유공	서초구	정경애	자녀	정경애님은 경제적 고초와 가정의 풍파를 감내하며 103세의 모친을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봉양하고 있음. 형제자매들 모두 모친을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 역시 어려운 형편임에도 홀로 거주하시는 어머니의 월세를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로하신 모친을 모시고 살며 식사, 의약품, 운동 등을 챙겨드리며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함. 이런 정경애님의 보살핌덕분에 모친께서는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주변 산책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사도 잘 드시며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심.
31	효행유공	강남구	김중임	자녀	김중임님은 치매를 겪고 계신 어머니(1923년생)를 사랑으로 모시며 오랜 기간 돌보고 있음. 김중임님의 모친인 신한순 어르신께서는 데이케어센터를 이용 중인데 외부인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으로 처음에는 적응을 어려워 하셨으나 현재 연세에 비해 건강한 신체·인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심. 이는 센터와 항상 어르신들의 상태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하는 보호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처럼 항상 어르신을 먼저 생각하는 김중임님의 모습이 다른 보호자들에게 모범이 됨.



연번	공적분야	자치구	성명	관계	공적개요
32	효행유공	강동구	고영순	자녀	100세 어머니를 40여 년간 물심양면으로 모시고 있는 고영순님은 공경과 효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음. 직능단체 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써왔으며, 퇴직 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어르신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데이케어센터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와 효 문화에 기여함.
33	효행유공	강동구	문현숙	자녀	외동딸로서 배우자와 함께 40년 이상 103세의 모친을 모시고 있음. 문현숙님의 각고한 노력으로 모친께서는 연령 대비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심. 모친 역시 과거 부모님을 섬기며 효를 실천하였으며, 문현숙님은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자녀, 손주까지 4대가 함께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가정을 조성하였음.
34	효행유공	관악구	한경조	자녀	한경조님의 어머니는 101세로, 부군께서 625전쟁으로 전사하셨음. 이로 인해 모친께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일을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셨다고 함. 한경조님은 젊은 시절 홀로 되신 어머니(강승연, 1922년생)를 아내와 함께 온 정성을 다해 봉양해왔으며, 아직까지 스승의 날 제자들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릴 정도로 존경받는 교사였음.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저녁으로 경로당 등지에 모시고 다니며 보살펴 드린 덕분에 어머니께서 걱정근심 없이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느끼며 장수의 삶을 영위하고 계심.